

코로나 바이러스 19 관련 현장예배 재개에 관하여

근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도 좋지 않은데다가 인종차별 문제로 인한 폭동 등으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난국을 잘 이겨 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현재 가주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봉쇄했던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안정적이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에서 현장 예배를 허용한 것도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계속 제한조치를 유지하기에는 경제적인 이유와 사람들이 격리조치를 견뎌내지 못해 반대의견이 증폭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187 만 3 천 498 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사망자 수도 10 만 7 천 778 명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조만간 확진자 수는 200 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쉽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나아질 것 같지 않으며,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래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최고조에 달해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경계심이 무디어져서 더욱 위험스런 상황이며, 다행히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번의 바이러스는 RND 바이러스로 변종이 생기는 율이 DNA 바이러스에 비해 1000 배나 높기 때문에 계속 유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점을 가만하셔서 현장예배를 재개함에 있어 신중해야 하고 또 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예배를 오픈함에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가지 실행 지침을 정리하여 보내드리므로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교회의 형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지침에는 모이는 최대한의 인원은 100 명입니다. (인원에 문제가 있으시면 예배 횟수를 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수용 인원의 25%까지 이며 둘 중에 적은 쪽으로 적용이 됩니다.

완전한 오픈을 위한 단계적 과정으로써 3 주 동안 새 지침에 따른 코로나 바이러스 19 의 확산 여부를 살핀 후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배 참석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 ▲헌금바구니를 돌릴지 말 것
 - ▲교회가 속해있는 보건국 연락처를 공지할 것
 - ▲입장 전 참석자들의 체온을 확인 할 것
 - ▲봉사자들에게 개인 보건안전을 위한 물품(마스크, 일회용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제공할 것
 - ▲모임 장소의 환기를 자주 시킬 것
 - ▲예배 장소를 제외하고 가정이나 사업체 방문을 하지 말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또 6 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 문손잡이 등 자주 만져야 하는 것들은 정기적으로 소독할 것을 강조했다.
 - 교인들끼리의 친교를 위한 음식물 제공은 금지되며
 - 교인들끼리 신체를 접촉하지 않도록 당부할 것을 지적했다.

- 특히 찬송이나 교독, 기도 등 비밀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6 피트 이상의 거리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

교회에서 현장예배를 시작하시게 되면

- 그리고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도록 합니다. 예약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미리 누가 참석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참석자 가족의 대표자 이름, 몇명이 참석하는지를 미리 신청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예배부에서 참석 여부 확인을 답장으로 알려 드립니다.

예배시 또는 예배 후 안전수칙

- 예배에 참석하실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6 ft)와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예배실로 들어오기 전에 적외선 체온계를 통해 발열여부를 체크하도록 합니다.
- 그리고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하고 주보를 가지고 예배실로 들어갑니다.
- 들어가면서 미리 헌금 바구니나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시고 들어가시도록 합니다.
- 예배 중에 마스크는 착용하셔야 합니다.
- 교회 화장실 사용도 가급적 제한하게 되므로 가급적 교회 오시기 전에 화장실을 들러 오시도록 합니다.
- 예배 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셨을 때에도 악수 등 접촉하시는 일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 예배 후 친교 식사나 간식 등 음식을 나누는 일은 삼가도록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지키는 코로나 19(COVID-19) 방역수칙은 메일이나, 주보에 첨부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림에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John Piper 목사님의 최근 저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란 책을 소개합니다.

책의 분량이 아주 작아서 조금만 시간 내면 쉽게 읽고 좋은 아이디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사모되는 요즈음 임재가 있는 찬양 영상 하나 올려드립니다.

부르는 사람은 달라도 모두 같은 찬양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iPSimQa1DY>

https://www.youtube.com/watch?v=iJCV_2H9xD0

<https://www.youtube.com/watch?v=ULT4HDDsVHQ>

<https://www.youtube.com/watch?v=1zuc263PPbo>